요즘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문화 장르 중 하나가 바로 뮤지컬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연이 서울에서만 열리는 탓에 지방 관객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5만원을 호가하는 티켓 가격 역시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이럴 땐 극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뮤지컬 영화에 푹 빠져 보는 건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도 관객동원에 성공했던 '시카고' '물랑루즈' 이후 오랜만에 뮤지컬 영화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렌트' '프로듀서스''드림걸즈' '삼거리극장'

랄라라~ 뮤지컬 영화 열풍

사진 왼쪽부터 '렌트' '프로듀서스' '드림걸즈' '삼거리극장'

가장 관심을 끄는 영화는 오는 18일 개봉하는 '렌트'. 조승우가 주연한 뮤지컬 티켓이 판매 개시 2시간 만에 모두 팔려나가는 등 공연계에서 다양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작품을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영화 '렌트'는 뮤지컬 팬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아담 파스칼을 비롯한 초연 당시 뮤지컬 스타들이 그대로 출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페라 '라 보엠'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렌트'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사는 뉴욕의 이스트 빌리지를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1996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돼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토니상을 휩쓴 '렌트'는 'What your own' 등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가 삽입돼 팬들을 즐겁게 한다. 감독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만들었던 크리스 콜롬버스 감독.

같은 날 개봉하는 '프로듀서스'는 초연 당시인 2001년 토니상 12개 부문을 휩쓴 화제작으로 1968년 만들어진 동명의 영화가 원작이다.

한때 잘나갔지만 요즘은 만드는 작품마다 실패하는 뮤지컬 제작자 맥스와 소심한 회계사 레오는 '투자금을 모아 하루만에 공연을 망하게 하면 제작자는 오히려 거액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형편없는 뮤지컬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감독, 배우를 섭외해 만든 그들의 작품이 뜻밖에도 최고의 히트작이 되면서 일은 꼬이고 만다.

브로드웨이 무대에도 섰던 매튜 브로데릭과 나단 레인이 그대로 출연하며 여비서 울라 역으로는 '킬빌'의 우마서먼이 호흡을 맞춘다.

2월 22일 개봉 예정인 '드림걸즈'는 현재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폭발적인 흥행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아카데미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 글로브 작품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1981년 초연된 '드림걸즈'는 실존했던 여성 그룹 '슈프림스'와 리더였던 다이아나 로스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영화로 가요계의 톱스타 비욘세와 인기 프로 '아메리칸 아이돌'의 스타 제니퍼 허드슨, 영화 '레이'의 제이미 폭스, 에디 머피 등 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한국의 뮤지컬 영화 '삼거리 극장'은 안 보면 후회할 작품이다. 아쉽게도 극장에서 1주일만에 막을 내렸지만 중독성 있는 음악과 독특한 스토리는 보는 내내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박준면 등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도 수준급이며 특히, 기발한 아이디어 상상을 뛰어넘는 재기 넘치는 스토리와 대사는 영화 보는 재미를 만끽하게 해준다.

현재 광주극장의 '나만의 프로포즈'를 통해 20, 24일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목! 이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꽃미남 디카프리오의 특급 액션

1990년대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내전의 자금 조달과 연계된 다이아몬드 밀거래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물. '다이아몬드 잔혹사'를 원작으로 했다.

영화의 배경은 내전이 한창인 1999년의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공화국. 짐바브웨 용병 출신 대니 아쳐는 '누군가 진귀한 핑크색의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우연히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솔로몬은 난민이 된 가족과 소년병으로 끌려간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다이아몬드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아쳐는 다이아몬드 산업의 부패를 폭로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을 찾아 다니던 여기자 매디 보웬의 도움으로 솔로몬과 함께 반란 세력의 영토를 통과하기로 결정하는데….

'디파티드' '에비에이터' 등을 통해 연기파 배우로 자리를 굳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인 용병 대니 아쳐 역으로 출연하며 '아미스타드'의 디몬 혼수, '뷰티플 마인드'의 제니퍼 코넬리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18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권순분 여사 유괴사건' 나문희·유해진 캐스팅

영화계는 지금

'신라의 달밤' '광복절 특사' '귀신이 산다' 등 코미디 영화에서 장기를 발휘해온 김상진 감독의 차기작에 나문희〈사진 왼쪽〉가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나문희는 전설의 해장국집 사장의 납치사건을 코믹하게 그린 '권순분 여사 유괴사건'에서 타이틀롤을 맡는다.

그녀가 맡은 권순분은 어설픈 세 남자에게 납치 당한 후 나몰라라 하는 불효막심한 자식들을 응징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몸값 500억원을 뜯어주겠다고 나서는 할머니다.

'왕의 남자' '타짜'로 인기 배우 대열에 들어선 유해진〈사진〉을 비롯해 코믹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강성진과 신예 유건이 어리버리한 유괴범으로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허브 몸은 스무살이지만 정신 연령은 일곱살인 상은의 성장기. 연기파 배우 배종옥·강혜정이 주연을 맡았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스타박스,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프리머스
에라곤 '반지의 제왕'을 잇는 대작 판타지 영화. 한 소년이 사악한 왕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스타박스,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프리머스
데스노트 라스트 네임 동명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관객 80만명을 동원한 '데스노트'의 후편이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스타박스, 목포 롯데, 목포 프리머스 ,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데자뷰 덴젤 워싱턴, 토니 스콧 감독이 호흡을 맞춘 액션 스릴러물.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스타박스, 목포 롯데, 목포 프리머스 ,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묵공 일본의 인기 만화를 영화로 옮긴 대사사극으로 유덕화·안성기가 열연한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스타박스,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블러드 다이아몬드 아프리카 내전을 배경으로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벌이는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열연이 돋보인다. 18세 관람가.	롯데 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스타박스, 목포 롯데,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미녀는 괴로워 전신 성형수술로 S라인의 미녀로 탄생한 여주인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일본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했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프리머스
조폭마누라 3 서기와 이범수가 주연을 맡은 코미디물.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 목포 CGV,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프리머스
박물관이 살아있다 밤이면 전시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기이한 박물관에 취업한 경비원의 좌충우돌 모험이 펼쳐진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씨너스 전대, 목포 롯데, 목포 메가라인, 목포 프리머스,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프리머스